

역대급 불장에도 웃지 못하는 동학개미...반도체 '포모' 확산

〈Fear Of Missing Out·소외공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매수세 풀림 심화
28만·188만원 마감...연초비 2배 이상 ↑
독주체제에 타 분야 투자자 소외감 극대
전문가, 개인 묻지마 '뇌동매매' 주의 당부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역대급 불장'에도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잘 고른 종목 하나로 역대급 수익을 거둔 동학개미(국내 증시 투자자)가 있는 반면, 클릭 한 번으로 잘못 들어간 종목에 물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투자자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두톱'에 대한 매수 풀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해당 종목목을 보유하지 못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공포를 뜻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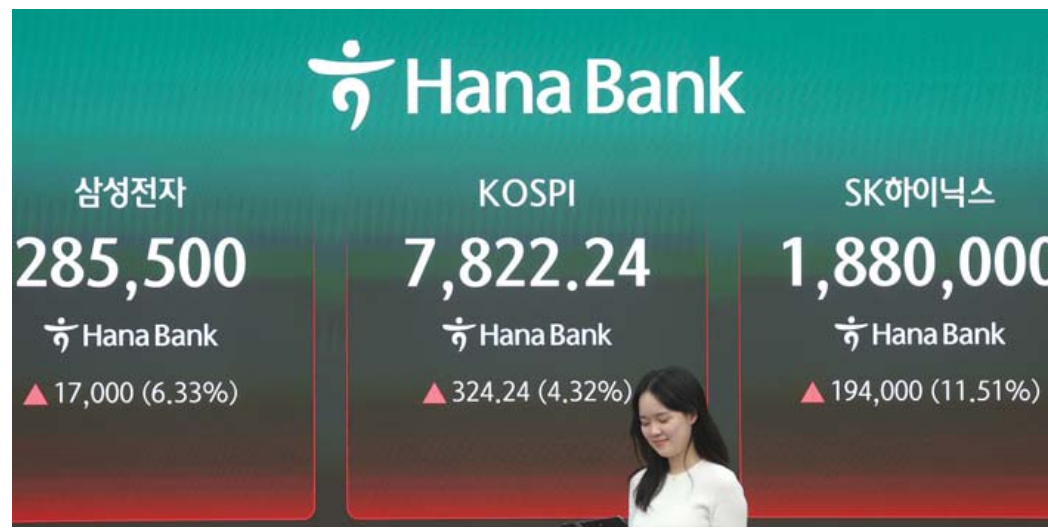
◇반도체 '두톱' 독주체제
국내·외 반도체 사업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는 오후 3시30분 기준 28만5천500원, SK하이닉스는 188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장중 한때 190만원을 돌파하기

도 했다. 이 두 종목은 연초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올해 이들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폭발적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승률 약 122.2%, SK하이닉스는 177.7% 상승했다. 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 점유율 확대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1천704조원, SK하이닉스 1천368조원 등 두 기업의 시가총액 합산 비중이 3천조원을 넘어하면서 코스피 전체 시총(6천391조원) 절반에 달해 최고치 경신을 견인하고 있다.

◇"나만 못 벌었나" 멍드는 개미들
직장인 양모(30)씨는 최근 스마트폰에서 주식 거래 앱을 삭제했다. 불과 몇 달 전, 보유하고 있던 반도체 대장주를 매도해 소폭의 차익을 남긴 뒤 인터넷 관련주로 갈아탄 것이 화근이었다. 양씨가 종목을 교체하자마자 반도체주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며 급등한 반면, 새로 옮겨간 종목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양씨는 "아무리 뉴스를 안 보려 해도 주변에서 주식 수익 인증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흔들리는 멘탈을 잡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시장의 질적 변화에서 기인한다. 최근의 상승장은 지수는 오르지만 상승 종목 수는 제한적인 '차별화 장세'의 전형을 보여준다. 반도체 업종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코스피, 사상 첫 7,800선 돌파
코스피가 하루 4% 넘게 급등해 사상 최초로 7,800대로 마감한 11일 서울 증시 마감은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증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324.24포인트(4.32%) 오른 7,822.24로, 코스닥 지수는 0.38포인트(0.03%) 내린 1,207.34로 마감했다.

비중이 절대적인 탓에 지수가 오를수록 반도체 미보유자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는 구조다. ◇'주린이'들의 비명... '월급으로 미래 안 보여 시작했는데'

자산 형성의 마지막 사다리도 주식 시장을 선택한 '주린이(주식+어린이·주식 초보자)'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주식 입문 2-3개월

차인 회사원 주모(35)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종잣돈을 전부 주식에 쏟아부었지만, 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장을 보며 안절부절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주씨는 "내 계좌엔 파란불(손실)이 가득한데 뉴스에서는 역대급 상승장이라고 하니 괴롭다"며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

으면 부러움을 넘어 자괴감까지 든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열기에 휩쓸려 들어온 초보 투자자들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심리적 붕괴를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뇌동매매 주의보... "냉정 찾고 원칙 지켜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풀림 장세 일수록 개인 투자자들이 '뇌동매매(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매매 형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포모 현상이 쫓겨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고점에 물릴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코스피 지수 7,800선 돌파 등 상징적인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철저한 분산 투자와 현금 비중 확보를 통해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역대급 불장이라는 화려한 수익이 뒤에는 업종 간 수익률 양극화라는 쓸쓸한 이면이 있다"며 "지금은 수익률을 쫓기보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재점검하고 흔들리는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재만 기자

광주은행, 가정의 달 '드림꾸러미'로 어린이들 응원

임직원·대학생 홍보대사 제작 참여
학용품 등 지역아동센터 전달 예정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드림꾸러미 제작 사회공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물품들을 나누면서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

광주은행은 11일 지역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한 '드림꾸러미 제작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어린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광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광주은행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등 약 30명이 참여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드림꾸러미' 100상자를 직접 제작했다. 참여자들은 꾸러미에 담긴 물품을 하나하나 정

성껏 포장하며 어린이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완성된 꾸러미는 광주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드림꾸러미'는 어린이들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학용품과 보조가방을 비롯해 텀블러, 보조배터리 등 생활용품과 저금통, 계산기, 전자블록놀이 등 학습 및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품목을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드림꾸러미에 담긴 물품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단순한 선물이 아니

라, 누군가 자신의 내일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금융교육, 아동·청소년 지원,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ESG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임재만 기자

중기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곡성 등 10곳 선정"

민·관 합동 지원단 본격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건설링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는 전국 기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성장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이번 건설링 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10개 특화특구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섬진강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승강기벨리산업특구)

▲경남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한방·미늘산업특구) ▲경북 성주(잡곡산업특구) ▲충남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고추산업특구) ▲경북 영덕(대게특구) ▲부산 남구(UK평화문화특구)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특화특구들이 집중적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5월 중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등),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여수 수산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오전 5시 ~ 오후 10시
- 휴무일 : 둘째, 넷째 화요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광고문의 : 062)650-2099